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지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은 본 會國際部(TEL : 553-0941/7)로 연락 바랍니다.

### 1. 한국산 DRAMs A/D

Undertaking 최종협상이 타결되었으나, 현안 문제는 잠정관세의 여부에 있으며 이와 같은 잠정관세의 징수가 EC 기관들의 정상적인 관행일지라도 일부 한국 제조업체들은 동케이스에서 잠정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잠정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기존 일본산 DRAMs A/D 조사에 비해 차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 2. 한국, 홍콩산 3.5" Microdisks A/D

일본, 대만, 중국산 3.5" Microdisks A/D 케이스에서, EC 집행위의 보호조치를 채택하는 제안을 반대하는 가중소수결(blocking minority)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이해한다.

이와 같은 보호조치의 채택 반대는 패혜협회의 부재에서 초래되었으며, 만일 동케이스에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수출업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극히 어렵게 될 것이다.

### 3. 한국산 Car radio A/D

새로운 진전사항은 없으나,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극동의 타국가에서 Car radio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의 1개업체가 현재 원산지 조사를 받고 있다.

### 4. 세계 무역협상 동향

미·EC간에 타결된 농산물분야 합의차 UR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92. 12월초에 상당한 기대였다.

미국, EC의 관리들 뿐만아니라 GATT 고위 관리들은 크리스마스때까지는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협상을 종결시켜 '93. 1월초 완료될 UR협상 최종안의 시장접근 문제와 입법초안만을 남겨둘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동일정은 여러가지 이유로 보아 상당히 야심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첫째, 미·EC 농산물분야 협상타결에 대한 EC내에 뜻밖의 강경한 이견이 표출되었다.

프랑스가 미·EC 농산물분야 협상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고 자국의 이익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고려, UR 협상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위협은 항상 예상되어 왔던 일이다.

프랑스는 예상되었던대로 행하여 왔으며 EC 협상자들이 제시할 협상타결안은 협상위 임권을 훨씬 벗어난 것이며 따라서 프랑스의 입장에서 볼때 동협상타결안은 “무효(null and void)”라고 제네바에서 공식 천명하였다.

프랑스는 또한 자국의 입장을 옹호토록 EC의 기타 회원국을 상대로 로비활동과 최소한도로 자국을 농산물분야 협상 타결에 대한 유일한 반대국으로서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 로비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수주동안에 프랑스는 벨기에,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를 포함한 EC의 여러 회원국들로부터 동정적인 소식(Sympathetic hearing)을 접했다.

어느 경우에서도, 농산물 및 일반 EC 각료 이사회에서 상기 EC 회원국들은 미·EC 농산물분야 협상 타결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함으로써 프랑스에 동참했다.

이와 같은 EC국간의 이견은 기타 주요국가 특히 미국에 EC가 농산물 분야 협상타결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 일으켰다.

둘째, 크리스마스때까지 원칙적으로 협상타결을 예측해왔던 미·EC 협상자들은 UR 비농산물분야 현안에 대한 이견을 축소함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과소평가 했다.

예를들면, 기타주요 교역국가 뿐만아니라 미국, EC는 덴켈의장안의 일부분인 다자간 무역기구(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하기사항에 미·EC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 (1) 미국은 다자간 규정이 적절한 결과를 도출치 못할 경우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의 유지를 희망.
- (2) EC는 오디오 비디오 제품교역에 관한 다자간 규정에서 문화 프로그램(Cultural Programming)의 제외를 희망.
- (3)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관세 및 시장접근의 양허.

'92. 12. 8 덴켈 GATT 사무총장은 이러한 이견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무역협상위원회(TNC)을 해산하였으며 동 TNC는 '93. 1월초 소집되어 협상이 속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이 재개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상자들이 '92. 12. 18일 부시 미대통령과 메이저 영국수상, 텔러스 EC 집행위원장이 워싱턴에서 회동, 목표일을 잡은 '93. 1. 15일까지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중요 현안들은 '93. 1. 20일 들어서는 클린턴 미행정부가 해결토록 남겨둘 가능성이 크며 차기 행정부가 미의회의 신속처리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93. 3. 1까지 최종 타결안의 제출을 위해 최종 마무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 5. 세계 반도체 동향

세계 반도체 무역통계기구(WSTS)가 공표한 추정에 의하면, 92년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예상했던 성장률 12% 보다 낮은 7.8%로서 58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저성장률은 주로 일본시장의 하락에 기인하는데, 일본시장은 1991년도에 비해 -7% 성장한 194억 달러로 하락했다.

이러한 일본시장의 하락은 특히 세계시장의 30%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기타 아시아지역에 혜택을 주었다.

'92년 10% 성장한 EC의 시장점유율은 112억달러, 즉, 거의 20%을 차지했다.

EC 집행위는 산업정책에 관한 새로운 접근의 일환으로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지원키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유럽전자 업계와의 연석회의를 개시했다.

## 6. HDTV 동향

타결안에 관한 열띤 토론이후 EC 잔여 회원국 대표들은 '92. 12. 15일 열린 특별 통신 각료회의에서 영국이 HDTV 실행계획을 채택토록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존 메이저 영국수상이 에딘버러 정상회담에서 동계획에 반대 않기로 합의하였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동계획에 반대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은 금세기말 전에 가능할 것이나 Interim Technology에의 막대한 투자계획에 회의감을 불러 넣었다.

'92. 12. 21일 열린 EC 일반 각료이사회는 영국이 의장국으로서 HDTV건에 관한 마지막 기회였다. 동 이사회는 HDTV 일건 서류(dossier)를 차기의장국인 덴마크에 위임하였으나 Pandolfi 의장이 언급하였듯이 1992년도에 책정된 3천2백만 ECU을 지출하는 것은 가능치 않을 것이며, 1993년도에 집행될 새로운 예산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7. 제3국과의 협력

일본정부는 국내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EC 대외 경제관계 의회 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맹렬히 비난했다.

동보고서는 '92. 11월 동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나 93년도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릴 EC의회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은 동보고서가 쌍무 무역 불균형에 관한 주요 요인중 하나 즉, EC 업계의 일본시장 진출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EC 주재 일본대표부에 의하면, 동보고서는 EC 업계가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일본시장에 접근토록 자극을 주었어야만 했다.

일본정부는 EC의회 총회에서 채택될 최종보고서가 더욱 건설적이고 보다 낮게 균형이 이루어져 작성되길 고대하고 있다.

## 8. 표준화 정책

EC 집행위,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질랜드 정부 대표들은 EC 각료이사회가 최초로 언급한 '89. 12월 결의안(Resolution)의 세계적인 표준화 접근(Global Approach)에 따라 제품 표준평가에 관한 상호인식 협정을 협상할 목적으로 '92. 12. 8 브뤼셀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EC 집행위는 비EC국가와의 상호인식 협정을 협상할 위임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근본적으로 여러 현안 문제의 명확화, 협정의 분야와 향후 추진될 협상방법을 결정하는데 목표가 두어졌다.

동협정들은 국간의 제품교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나, 소비자의 건강과 기타 요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필요하며 또한 시험 및 인증 요구조건이 적용되는 경우 여러 산업분야의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해 줄 것이다.

## 9. 연구개발(R & D)

EC 회원국의 과학 전문가들은 '92. 12. 14일 R & D에 관한 제3차 Framework Programme에 얼마 만큼의 특별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의결타결을 보는데 실패했다.

영국의 에딘버러 정상회담에서 '93~'99년 텔러스 Financial Package에 대한 합의는 연구정책을 위해 취해질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에딘버러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결론에서 의장국인 영국은 R & D 단계별 지출은 전체지출중 1/2~2/3 사이에 남아 있는 Financial Perspective 안의 카테고리 3에 따라 EC역내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지출(+29%)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Martin Bangemann EC 집행위 부위원장은 산업 정책상의 R & D 역할에 대해 EC 의회의 에너지·연구·기술위원회와의 의견교환중 연구정책은 연구기관과 기업간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재조정 되어야하며 반면에 기초연구를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태리 정부는 현재 연구 정책분야 집행위원인 Pandolfi를 EC 집행위 신임 부위원장에 임명키로 결정했다.

## 10. 한·미 통신 협정

'92. 4. 14일 Gijs de Vries의 한·미 통신협정에 관한 대EC 집행위 서면 질의는 '92. 9. 14일 EC 집행위를 대신해 Andriessen이 답변했다.

동질의는 동 한·미 통신협정의 주요내용과 서명국으로서 한·미 양국의 의무에 따른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De Vries는 또한 동협정이 EC의 경쟁력이 미치는 영향과 EC 집행위가 동쌍무협정에 대해 미국 및 한국정부에 비난하였는지를 문의했다.

Andriessen은 답변에서 한국은 GATT 정부

조달 협정(GPA)의 서명국이 아니며 더욱기 기존 GPA는 GPA 서명국의 대부분의 통신업체를 커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협상진행중인 개정된 GPA에 가입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며 새로운 GPA의 규정에 대한 한국의 통신 Perators을 제출할 의사를 표명 하였다.

EC 집행위에 의하면, EC 업체가 효과적으로 한국통신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당국과 계속 노력할 것이다.

### 11. EC-일본관계

EC 일본간 무역흑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재 기타요인을 고려하지 않고도 무역흑자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었던 엔화의 평가 절상에의 추가 요인이었다.

최근 엔화가치의 상승은 자동차 수입에 관한 EC·일본의 협상자들간의 협상실패의 확실한 주요 요인이었다.

EC·일본 양당사국간의 인식제고의 필요성은 일본 외무성에 특별히 임명된 Advise들이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여실히 파악되었다. 동 연구보고서는 EC·일본간의 관계에 주류를 이루어 왔던 전통적인 무역분쟁과 오해(misunderstanding)을 주목하고 이러한 점을 시정기 위한 입건의 권고를 하였다.

이러한 권고사항중에는 아시아시장 진출을 도울 목적으로 EC·일본업체들간의 합작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기타 권고사항은 일반적으로 양당사국간의 동반자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OECD Survey>

'92. 11. 26일 OECD는 일본에 관한 연례 경제 조사보고서를 공표. 동 조사보고서에 결론은 다음 두가지 이유에서 흥미롭다. 첫째, 일본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타 OECD 국가들보다 시장접근이 어렵지는 않으

며 둘째, 무역장벽을 축소시키는 권고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조사보고서는 농산물, 건설, 운송, 통신교역 등과 같은 특정 부문의 무역장벽 철폐를 권고 뿐만아니라, 외국업체의 교역을 용이케하는 관련법 제정과 더욱 명확한 독점금지법의 강화가 권고되었다.

### 12. 한·EC 관계

삼성이 부다페스트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키로 결정한 것은 한국업체가 추구할 새로운 투자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Financial Times지는 일본업체로 하여금 현재의 경우처럼 영국에 치중하지 않는 EC 국가에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EC주재 일본업체들의 대표들이 제시한 의견제외에 관하여 보도했다.

이들 EC 국가들은 명백히 한국 업체들의 투자유치를 제각기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유치 전략은 시장자유화에 따른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동유럽시장의 근접성에 있다.

분명히, 삼성은 헝가리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시킴으로서 직접적인 투자전략을 선택하였으나 기타 한국업체의 투자대안은 EC의 "Eastern Front"에 상장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EC 시장에서의 시장접근이 가능케될 것이며 이와 같은 투자업체들은 재화,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전략의 또다른 잇점은 현재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은 금융 자유화의 혜택이다.

한국 한화의 이자율은 외화차입률 만큼 높은 5~7% 수준인 반면, Second Banking Directive('93. 1. 1시행)은 EC 회원국에서 인가된 은행은 다른 EC 회원국에서 영업활동을 가능토록 허용하게 될것이다.